

#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2.05)



## CONTENTS

- 제이월드 1분기 실적 발표
- [e-모빌리티 협의체] 출범
- 1분기 벤처투자 현황 브리핑

### 1. 제이월드 2022년 1분기 가결산 기준 실적 발표



[안다아시아벤처투자조합1호], [안다소재부품벤처투자조합], [안다소재부품벤처투자조합2호]의 투자기업인 (주)제이월드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022년 1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제이월드의 2022년 1분기 연결기준(가결산) 실적은 매출액 458억원, 영업이익 12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액 340억 원, 영업이익 45억원 대비 각각 34.7%, 18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초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2 및 보급형 A3, A5 시리즈의 신규 모델 납품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최신 모바일 제품의 개발단계에 참여하며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하반기 부터 선행 생산이 진행이 예정돼있어, 향후로도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 당사 주도로 'e-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 출범 예정

안다아시아벤처스가 그린뉴딜 모태펀드 결성에 맞추어 준비하던, [e-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가 6월 22일(수) 10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 협의체의 참여업체는 당사를 비롯하여,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진흥공단**,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참여하며, 멘토업체로는 **오텍캐리어**를 비롯한, **평화정공**, **에스제이엠**, **현대모비스**, **한국프랜지공업**, **현대공업**, **제이월드**가 있으며, 금융사로는 **안다자산운용**, **하나은행** 등 일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당사는 그린 뉴딜 산업의 전문가인 멘토링 그룹과 함께 **투자대상의 발굴 및 벤처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며, 금번 출범하는 협의체를 통해 **멘토기업과 피투자기업 간의 사업적 시너지 효과는 물론, 조합의 투자수익 극대화**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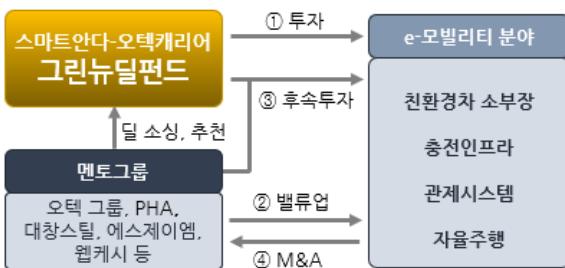
### “멘토링 협력체는 e-모빌리티산업의 전문가들로서 전방위 지원”

#### ■ e-모빌리티 산업 연관 멘토링 그룹 구성



#### ■ 협력방안 (월1회 정기 세미나: 전기차 기업 2개 IR, 산업세미나)

##### • 협업 개요



##### • 멘토링 협력체 역할

구분	내용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Mobility 산업내 POOL을 활용한 발굴</li> <li>멘토링 그룹 추천</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심의시 참관기능</li> <li>최초투자후 필요시 후속투자, M&amp;A 참여기회 제공</li> </ul>
벤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단 및 벤처업 대상자 선정</li> <li>멘토 지정 운영 및 관리</li> <li>공동 프로그램 및 성장단계별 맞춤프로그램 운영</li> </ul>

# 22년도 제1분기 벤처투자 현황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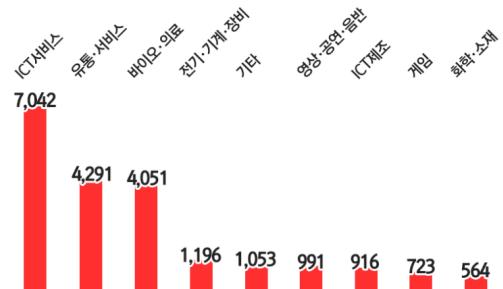
## 안 다 아 시 아 벤처스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분기	투자금액	6,377	7,789	7,732	13,187 <b>20,827</b>
	전년 대비	-	+1,412	△57	+5,455 <b>+7,640</b>
	증감률	-	+22.1	△0.7	+70.6 <b>+57.9</b>
1분기	투자 건수	608	774	719	1,054 <b>1,402</b>
	건당 투자	10.5	10.1	10.8	12.5 <b>14.9</b>
1분기	피투자기업 수	357	418	405	604 <b>688</b>
	기업당 투자	17.9	18.6	19.1	21.8 <b>30.3</b>

2022년 1분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금액이 나란히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년도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인 지난해 1분기 1조 3,187억원 대비해서도 57.9% 증가한 수치로 벤처투자 열기는 올해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모든 업종 투자가 늘었고, 투자 주력업종인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에 전체 벤처투자의 73.9%가 집중됐습니다.

또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도 급증했습니다. 1분기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52개사로, 전년 동기 24개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분기	결성금액	10,490	6,605	5,078	15,763 <b>25,668</b>
	전년 대비	-	△3,885	△1,527	+10,685 <b>+9,905</b>
	증감률	-	△37.0	△23.1	+210.4 <b>+62.8</b>
1분기	결성펀드 수	26	34	20	53 <b>93</b>
	펀드당 결성금액	403.5	194.3	253.9	297.4 <b>276.0</b>

펀드결성도 호조세입니다. 1분기에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은 93개의 펀드가 총 2조 5,668억원 규모로 결성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8%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 출자자 현황을 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4,741억원(1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9억원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964억원 늘어난 2조 927억원(81.5%)으로, 질적 지표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보수적 투자로 이어지거나 벤처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여전한 지속 성장세를 유지한 이유는 벤처투자 생태계가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모태펀드 예산 확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 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고 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 도입시 추가 투자유치시에도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가 가능